

경제 및 고용 동향

◆ 2009년 1월 생산 큰 폭 감소, 소비투자 침체 지속

○ 2009년 1월 광공업과 서비스 생산은 설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축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각각 -25.6%(전월대비 1.3% 증가), -0.9%(전월대비 0.3% 증가) 감소함.

－ 제조업 생산(-27.0%)은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10.1%), 의약품(4.0%) 등의 업종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35.3%), 자동차(-49.4%), 1차 금속(-35.0%)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0%), 금융 및 보험업(4.6%), 교육서비스업(1.4%)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운수업(-9.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4.8%), 숙박 및 음식점업(-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3.3%)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부진함.

○ 2009년 1월 소비, 투자 모두 각각 전년동월대비 3.1%, 25.3% 감소

－ 소비재 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0%)에서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9.8%)와 의복 등 준내구재(-1.1%)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는 기계류(-28.2%), 운수장비(-8.8%) 투자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국내건설기성은 민간부문의 건축실적이 감소하였으나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의 선행지표격인 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15.0%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사정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2.3으로 전월보다 2.4p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대비도 전월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1% 상승(생활물가지수 3.3% 상승)

○ 2009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2005=100)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동월대비 농축수산물물은 5.4%, 공업제품 5.0%, 서비스 3.4% 상승함.

－ 2009년 1월 대비 교양·오락부문(-0.5%) 하락과 보험인 통신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에 비해 석유류가 6.2%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1월	2/4	3/4	4/4p	연간p	1월
생산	산업 생산	4.0	7.0	5.9	11.0	6.8	10.6	11.7	8.6	5.6	-11.3	3.0	-25.6(1.3)
	제조업 생산	4.1	7.1	6.2	11.2	7.0	10.7	12.0	9.0	5.5	-12.1	3.0	-27.0(1.5)
	출 하	5.1	7.2	5.4	10.6	7.1	8.9	10.3	6.3	5.3	-10.1	2.4	-23.5(-1.4)
	수 출	6.7	9.9	9.1	16.2	10.2	14.3	14.7	13.5	10.3	-8.8	7.1	-21.8(-8.1)
	내 수	4.1	4.9	3.0	6.8	4.9	5.3	7.6	1.7	1.7	-11.0	-0.7	-24.6(-10.4)
	서비스업 생산	5.4	6.4	7.2	6.8	6.4	6.4	7.8	4.6	3.2	-0.3	3.5	-0.9(0.3)
소비	소비재 판매	5.7	5.2	7.1	4.5	5.3	3.9	5.2	2.5	1.4	-4.6	0.9	-3.1(-1.9)
투자	설비투자	12.8	12.1	0.7	9.2	8.6	-0.9	-1.5	0.1	5.3	-16.2	-3.2	-25.3(-4.7)
물가		2.1	2.4	2.3	3.3	2.5	3.8	3.9	4.8	5.5	4.5	2.5	4.1(0.7)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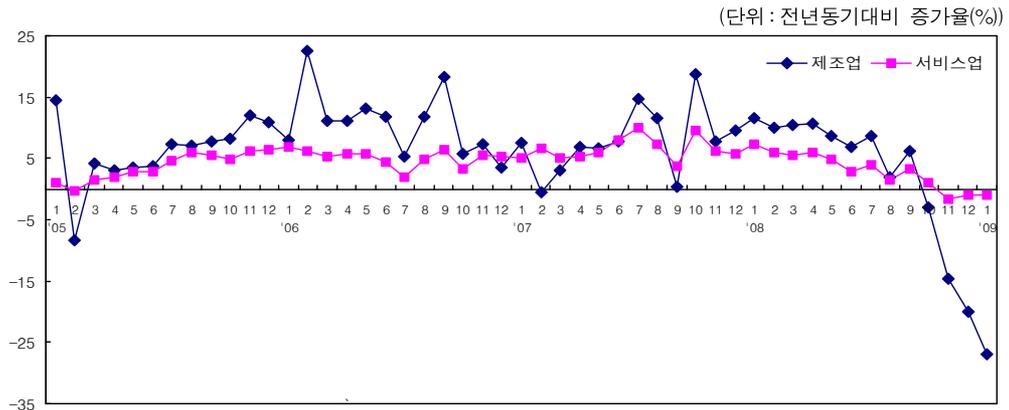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는 2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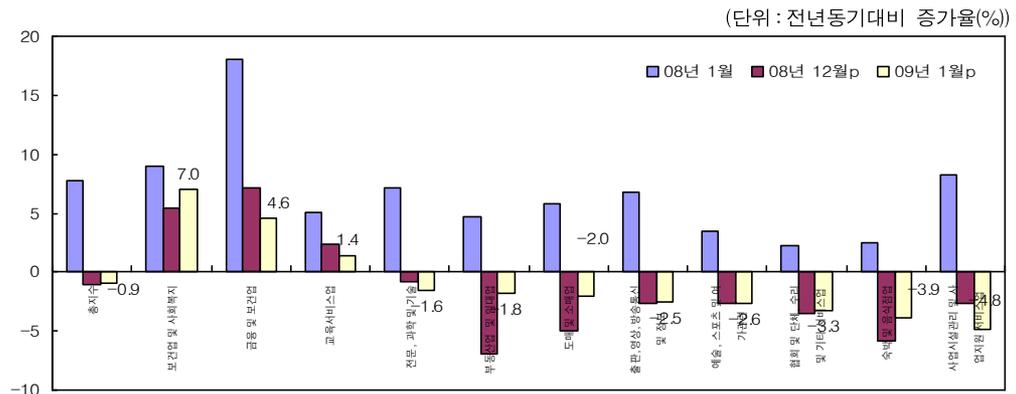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9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9. 3.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취업자 감소 지속

- 2009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70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0천 명(-0.1%) 감소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3,968천 명으로 47천 명(0.3%) 증가한 반면, 여성은 9,741천 명으로 76천 명(-0.8%) 감소함.

- 2009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1.7%)이 전년동기대비 0.8%p, 여성(47.8%)이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함(그림 3 참조).
- 2009년 1월 중 고용률은 57.3%로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68.8%로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6.4%로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하였음.
- 2009년 1월 중 취업자는 22,86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3천 명(-0.4%)이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40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천 명(-0.1%), 여성 취업자는 9,46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4천 명(-0.9%)이 감소함(그림 4 참조).
- 2009년 1월 중 실업자는 84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3천 명(9.5%)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6%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6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6천 명(13.1%)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8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천 명(2.9%)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1%로 전년동기대비 0.5%p, 여성은 2.9%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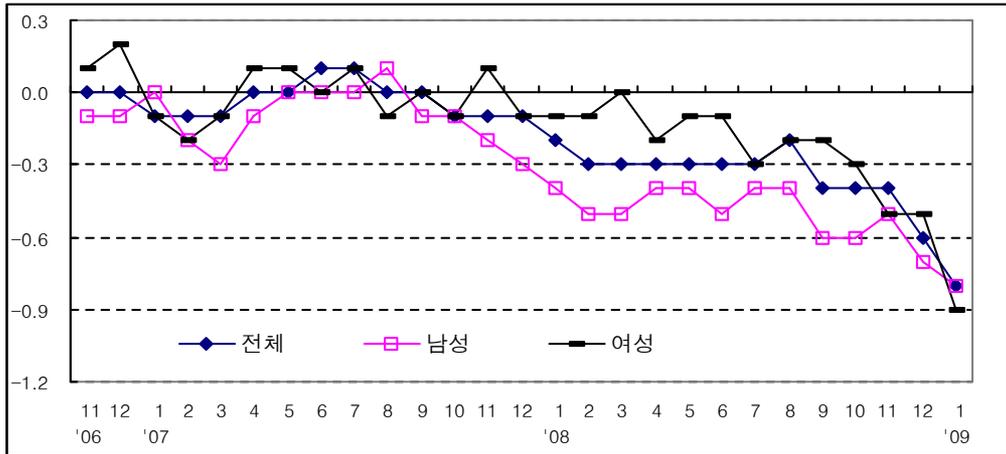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12월				1월
경제활동인구	24,316 (1.0)	23,852 (0.7)	23,738 (0.7)	24,638 (0.6)	24,503 (0.6)	24,394 (0.3)	24,032 (0.2)	23,709 (-0.1)
참가율	61.8	60.5	60.3	62.3	61.8	61.3	60.4	59.5
취업자	23,582 (1.2)	23,051 (0.9)	22,964 (1.0)	23,871 (0.7)	23,752 (0.6)	23,636 (0.3)	23,245 (-0.1)	22,861 (-0.4)
고용률	60.0	58.5	58.3	60.4	59.9	59.4	58.4	57.3
실업자	734	801	775	767	752	757	787	848
실업률	3.0	3.4	3.3	3.1	3.1	3.1	3.3	3.6
비경제활동인구	15,000 (1.3)	15,575 (1.8)	15,650 (1.8)	14,903 (1.7)	15,154 (1.9)	15,373 (2.5)	15,772 (2.8)	16,156 (3.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2009년 1월 고용동향』, 2009 2.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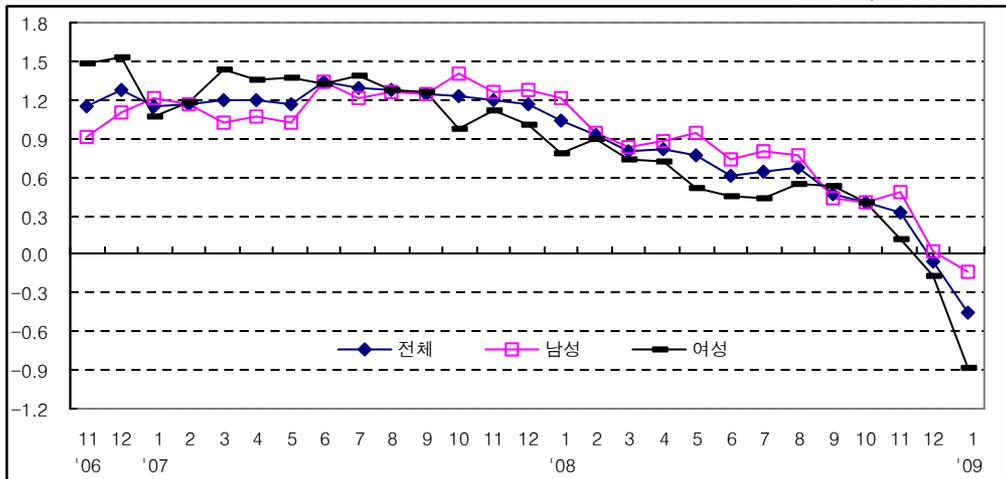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09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15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06천 명(3.2%)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1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5천 명(4.3%)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64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0천 명(2.7%)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76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9천 명(9.2%), 구직단념자는 16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1천 명(33.5%),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274천 명으로 137천 명(3.3%) 증가함.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 가속화

○ 2009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11천 명, 2.9%), 농림어업(15천 명, 1.2%)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127천 명, -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4천 명, -1.6%), 전기·운수·통신·금융업(-64천 명, -2.3%), 건설업(-41천 명, -2.4%)에서는 감소함.

－ 제조업,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2008년 이후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2월
전 산 업	23,582 (1.2)	23,051 (0.9)	22,964 (1.0)	23,871 (0.7)	23,752 (0.6)	23,636 (0.3)	23,245 (-0.1)	22,861 (-0.4)	
농림어업	1,687 (-3.8)	1,384 (-4.4)	1,267 (-4.8)	1,842 (-2.8)	1,824 (-2.0)	1,695 (0.5)	1,400 (0.3)	1,282 (1.2)	
제조업	4,013 (-0.8)	4,013 (-0.4)	4,022 (-0.6)	3,993 (-0.8)	3,934 (-1.3)	3,910 (-2.6)	3,888 (-3.3)	3,895 (-3.2)	
건설업	1,852 (-0.5)	1,748 (-1.2)	1,739 (-0.5)	1,886 (-2.4)	1,801 (-2.2)	1,811 (-2.2)	1,759 (-2.7)	1,698 (-2.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19 (-0.3)	5,704 (-0.6)	5,748 (-0.6)	5,670 (-0.7)	5,670 (-0.9)	5,657 (-1.1)	5,699 (-1.1)	5,655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487 (4.6)	7,382 (3.8)	7,352 (3.9)	7,643 (4.0)	7,721 (4.5)	7,787 (4.0)	7,728 (3.6)	7,563 (2.9)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06 (2.7)	2,796 (2.7)	2,811 (2.9)	2,816 (1.8)	2,778 (-0.7)	2,754 (-1.9)	2,749 (-1.7)	2,747 (-2.3)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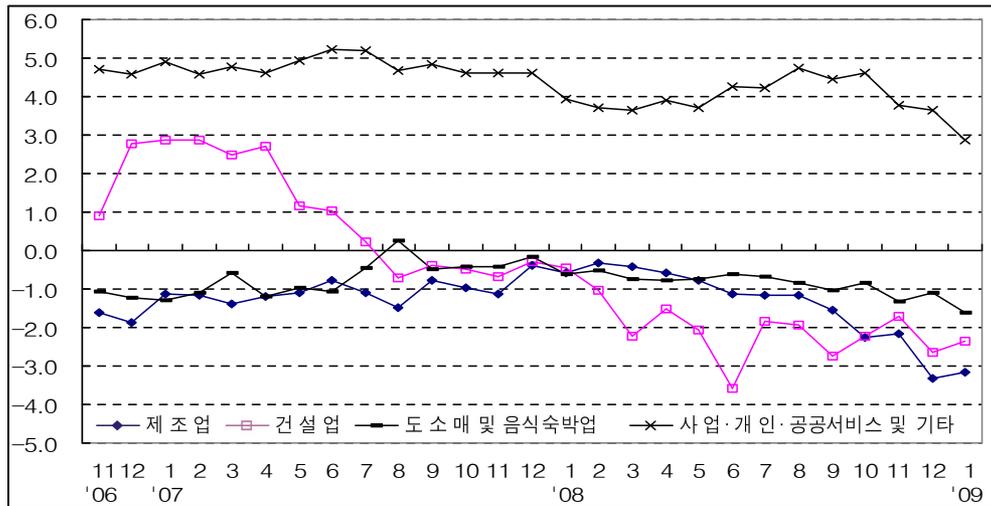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 『2009년 1월 고용동향』, 2009 2.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 일용근로자의 취업자 감소

- 2009년 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80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3천 명(-1.8%)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05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1천 명(0.1%)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102천 명으로 287천 명(3.3%)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982천 명으로 134천 명(-2.6%) 일용근로자는 1,969천 명으로 133천 명(-6.3%)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가속됨(그림 6 참조).
- 2009년 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14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4천 명(9.9%)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051천 명으로 474천 명(-2.4%) 감소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34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5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7천 명(32.4%)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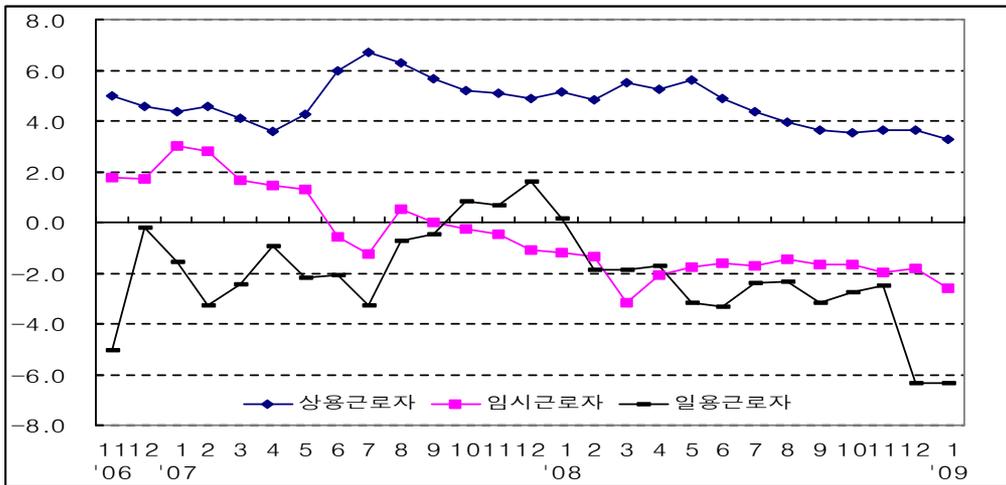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전 체	23,582 (1.2)	23,051 (0.9)	22,964 (1.0)	23,871 (0.7)	23,752 (0.6)	23,636 (0.3)	23,245 (-0.1)	22,861 (-0.4)
비임금근로자	7,426 (-1.8)	7,097 (-1.4)	6,932 (-2.0)	7,521 (-1.5)	7,522 (-0.9)	7,343 (-1.1)	7,056 (-1.4)	6,808 (-1.8)
자영업주	6,035 (-1.4)	5,816 (-1.3)	5,699 (-2.3)	6,073 (-1.1)	6,052 (-1.2)	5,939 (-1.6)	5,779 (-1.6)	5,587 (-2.0)
무급가족종사자	1,391 (-3.4)	1,281 (-1.8)	1,233 (-0.4)	1,449 (-3.3)	1,470 (0.7)	1,404 (0.9)	1,277 (-0.4)	1,221 (-1.0)
임금근로자	16,156 (2.6)	15,954 (2.0)	16,032 (2.4)	16,350 (1.8)	16,229 (1.3)	16,294 (0.9)	16,189 (0.5)	16,053 (0.1)
상용근로자	8,790 (5.1)	8,839 (5.2)	8,815 (5.2)	8,981 (5.2)	9,101 (4.0)	9,106 (3.6)	9,068 (3.6)	9,102 (3.3)
임시근로자	5,156 (-0.6)	5,064 (-1.9)	5,115 (-1.2)	5,141 (-1.8)	5,050 (-1.6)	5,062 (-1.8)	5,082 (-1.8)	4,982 (-2.6)
일용근로자	2,211 (1.0)	2,051 (-1.2)	2,102 (0.2)	2,227 (-2.8)	2,079 (-2.6)	2,126 (-3.8)	2,040 (-6.3)	1,969 (-6.3)
36시간 미만	2,549 (-5.1)	2,770 (-8.1)	2,862 (-4.1)	3,055 (19.1)	5,132 (29.5)	2,833 (11.1)	3,170 (20.0)	3,146 (9.9)
36시간 이상	20,806 (2.2)	19,888 (2.6)	19,525 (2.1)	20,546 (-1.7)	18,139 (-5.7)	20,552 (-1.2)	19,772 (-3.1)	19,051 (-2.4)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9년 1월 고용동향』, 2009. 2.

〔그림 6〕 임금근로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대, 30대, 대졸 이상 실업자 증가

- 2009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20대, 30대, 50대에서 증가한 반면, 40대에서는 소폭 감소함.
 - 2009년 1월 중 연령별계층별 실업률은 20대(7.7%, 0.8%p), 30대(3.5%, 0.4%p), 50대(2.3%, 0.4%p)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3.0%, 0.5%p), 고졸(4.4%, 0.1%), 대졸 이상(3.0%, 0.5%p) 모두 상승하였음.
- 2009년 1월 중 전체 실업자 84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천 명,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804천 명으로 73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2월	1월
전 체	734(3.0)	801(3.4)	775(3.3)	767(3.1)	752(3.1)	757(3.1)	787(3.3)	848(3.6)
15~29세	312(7.0)	328(7.3)	324(7.1)	327(7.4)	303(6.9)	300(7.0)	324(7.6)	356(8.2)
30~39세	183(2.9)	193(3.1)	194(3.1)	187(3.0)	193(3.1)	202(3.3)	189(3.1)	213(3.5)
40~49세	126(1.9)	160(2.4)	146(2.2)	138(2.1)	138(2.1)	134(2.0)	140(2.1)	144(2.2)
50~59세	78(1.8)	83(2.0)	79(1.9)	82(1.8)	91(2.1)	93(2.1)	102(2.3)	101(2.3)
60세 이상	35(1.3)	38(1.6)	32(1.4)	33(1.2)	27(1.0)	29(1.1)	32(1.3)	34(1.4)
중졸 이하	109(2.0)	128(2.5)	127(2.5)	120(2.2)	113(2.1)	111(2.1)	125(2.5)	144(3.0)
고 졸	372(3.7)	402(4.0)	430(4.3)	368(3.7)	381(3.8)	383(3.8)	417(4.2)	432(4.4)
대졸 이상	253(2.9)	271(3.1)	218(2.5)	279(3.1)	258(2.9)	263(2.9)	245(2.7)	272(3.0)
취업무경험실업자	40	44	43	49	39	37	44	44
취업유경험실업자	694	757	731	718	713	721	743	804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9년 1월 고용동향』, 2009. 2.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임금, 근로시간, 가계수지 동향

- ◆ 2008년 4/4분기 임금상승률, 전년대비 2.1% 하락
- 2008년 4/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61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1% 하락
 - 상용근로자의 경우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하락폭이 컸는데, 정액급여 증가율은 5.1%인데 반하여 초과급여 증가율은 -9.4%, 특별급여 증가율은 -22.2%를 기록
 - 임시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9.0% 하락한 836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
 - 2008년 4/4분기의 임금상승률 하락은 경기둔화로 인한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대폭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보임.
- 실질임금도 6.4% 하락
 - 2008년 4/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임금총액은 2.1% 하락한데 비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이보다 높은 6.4%의 하락폭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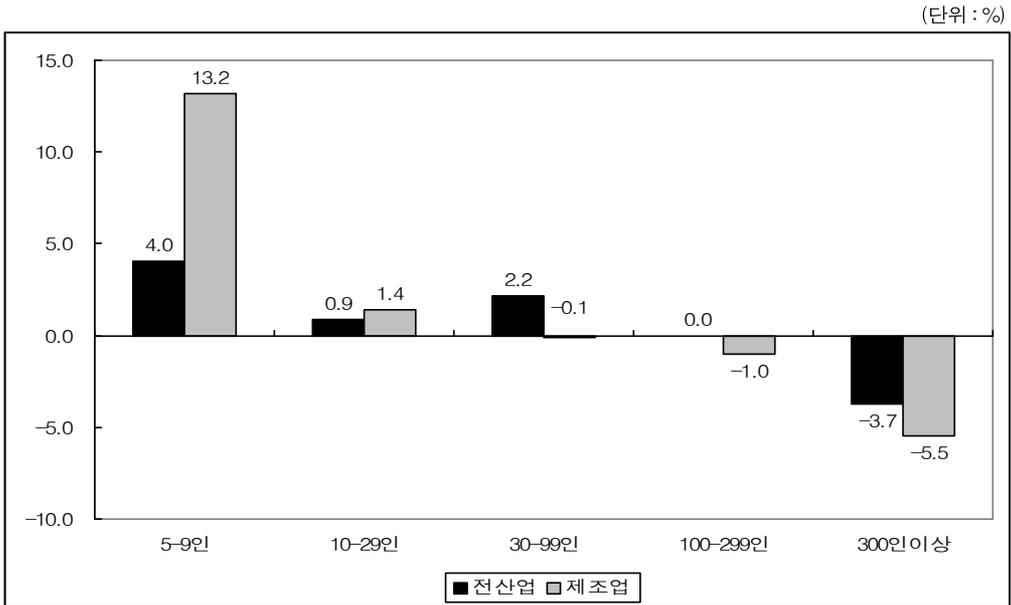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월,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510 (-)	2,410 (-)	2,604 (-)	2,719 (-)	2,662 (6.1)	2,563 (6.4)	2,672 (2.6)	2,661 (-2.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661 (-)	2,555 (-)	2,761 (-)	2,888 (-)	2,811 (5.7)	2,746 (7.5)	2,840 (-1.7)
	정액급여	1,995 (-)	1,995 (-)	2,028 (-)	2,086 (-)	2,103 (5.4)	2,171 (8.8)	2,148 (5.9)
	초과급여	156 (-)	167 (-)	165 (-)	172 (-)	168 (8.2)	169 (1.7)	158 (-4.2)
	특별급여	510 (-)	394 (-)	568 (-)	630 (-)	540 (5.8)	406 (3.1)	536 (-5.5)
임시 근로자 임금총액	870 (-)	911 (-)	918 (-)	918 (-)	887 (1.9)	816 (-10.4)	880 (-4.2)	836 (-9.0)
실질임금(전체 근로자)	2,425 (-)	2,304 (-)	2,472 (-)	2,565 (-)	2,478 (2.2)	2,339 (1.5)	2,405 (-2.7)	2,402 (-6.4)
소비자물가지수	103.5 (2.1)	104.6 (2.4)	105.3 (2.3)	106.0 (3.3)	107.4 (3.8)	109.6 (4.8)	111.1 (5.5)	110.8 (4.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림 7] 규모별 임금상승률(2008년 4/4분기)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대규모 사업체에서 큰 폭의 임금하락세 기록

- 2008년 4/4분기 전산업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9인 4.0%, 10~29인 0.9%, 30~99인 2.2%, 100~299인 0.0%, 300인 이상 -3.7%를 기록하여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하락세가 두드러짐.
- 제조업에서는 5~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은 13.2%인데 반하여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5.5%로 나타나 규모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KL**

(강승복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